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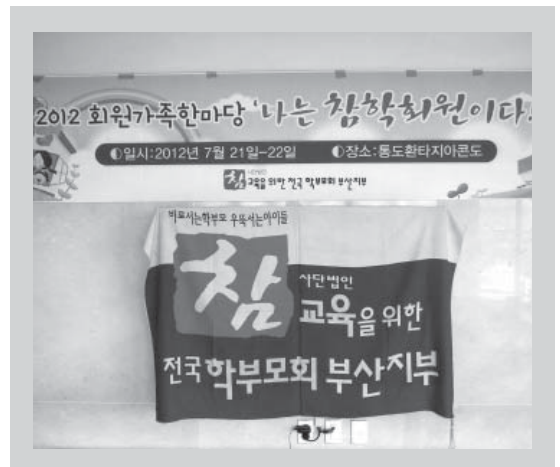
참교육 소식

8월

2012년 8월 통합 240호

발행인 : 광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 여는 글 p2
- 기획글 | 학습선택권 조례를 아시나요? p3
- 회원탐방 | 이내훈 회원을 만나다 p8
- 어린이글 p11
- 활동사진 p13
- 책 이야기 | 리딩으로 리더하라 p15
- 영화소모임 |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고 p17
- 교사 이야기 | 간 큰 우리 이야기 p19
- 회원 글 |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10) p29
- 김옥량의 농장일기 p23
- 회원만남의 날 | 회원연수를 마치고 p28
상반기 연수를 통도사에서 보내고.. p29
- 성명서 p31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3
- 학부모알림란 p35
- 지부일정 p38
- 7월 회비 보고 p39



여는 글
함께 읽고싶은 시

어떤 도둑

〈노영민〉

산골마을에 흥흥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 내력에 없는 도둑이 들었다는 거다
평생 목에 워낭을 달 놈!
마을의 이적지 가장 심한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도둑은 오리무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환장할 일이 생겼다.
도둑은 그렇다 치고 아무리 뒤져도 훔쳐간 물건이
없는 거다
쌀, 소는 물론 소쿠리 하나 없어진 게 없는 거다

이런 경우는 없다
도둑이 빈손으로 자리 뜨는 경우는 절대 없다!
마을 사람들
이제 도둑 잡기보다 잃어버린 물건 찾는 일에
더 혈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때...

찾았다아아아~~~~~
잡았다! 하는 소리보다 더 기운차게 온 산골에
메아리쳤다

먹밤을 이놈이 훔쳐갔다!
한 소쿠리 별을 지고 갔다!
알싸한 새벽 냉기를 꼬불쳐 갔다!
귀 씻는 계곡 물소리 이 더런 놈이 감아갔다!

마을 사람들 모여 이 요상스런 도둑에게 더 센
욕바가지를 덮쉬우기로 했다
호강에 받혀서 요강에 똥 쏘 놈!

하여
잡히기만 하면 모가지에
하늘빛과 먹빛, 물빛과 별빛 목걸이
평생 걸고 다녀야 하는 벌 주기로 했다

이 시는 우리 회원이시며 소식지에 교사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노영민선생님의 시입니다.
7월 5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시집 '어떤도둑'/(호밀밭)에 들어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무릎을 치는 시들이 수북히 들어있습니다.

(추천 : 김정숙)

기획글

학습선택권 조례를 아시나요?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오세자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정한 대로만 학습해야 할까요?

최근 부산시의회가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도 밤늦게까지 '강제'된 '자율'학습을 해야만 하는 우리 아
이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것만은 '정상'이 아니다 라는 인식에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의 학
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와 문제가 되고 있
는데요.

오늘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일권 부산시교육위원과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참교육학
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이일권 부산시 교육위원과 김정숙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 실장 남아 계
십니다. 안녕하세요?

MC/(1) 우선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무엇인지 왜 조례를 제
정하게 되었는지 이일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 예!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방과후 학교나 보충수업, 야간학습 같은 정규수업외
의 학습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선택에 있어 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교시,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을 반강제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습이나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실시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MC/ (2) 김실장님, 학부모입장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 물론 조례까지 제정해야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시절 정말 가고 싶은 음악회가 있는데 야자빠지면 벌점에다 체벌까지 당한다고 저보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선생님께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만 제가 선생님께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드려야 했지요. 참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을 제외한 학습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일입니다.

학부모도 학생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학교가 해야하는 가장 큰 민주주의 교육이 아닐까요?

MC/ (3) 학부모 입장에서든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가 제정됐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데요, 실제 학교 실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외국의 어떤 코미디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새벽6시에 등교하여 16시간 수업을 받고 또다시 밤12시까지 학원을 가는 나라가 있다, 없다’하여 맞추는 문제가 있었고 정답은 ‘있다’ 이며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등학생만 되면 학교라는 창살없는 감옥에 갇히는 형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초등학생마저 방학도 반납하고, 중학생도 0교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모든 것이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구요. 방과후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돌봄의 기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입시위주의 교육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 작은아이 학교의 선생님이 하소연을 하셨어요. 풍물담당이셨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모아야하는데 왜 풍물에서 아이들을 빼앗아 가느냐고 없애라고 해서 풍물반이 폐지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학교는 국,영,수 패키지반을 개설하게 되었지요. 그 반 인원을 늘이기 위해 임원엄마들 면담을 하기도하구요. 학교는 이런 실정이예요.

MC/ (4) 방과후 학교가 점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라며 다들 실감하실 것 같은 데요, 그럼 이 의원님,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할 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셨는지요? 방과후 학교는 다른나라에서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자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방과후 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적입니다. 강제참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선진국에서 우리와 같은 반강제 참여문제가 발생한다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의 국·영·수 같은 교과가 아니라 체육, 예술 등 특기적성과 취미활동이 많습니다.

MC/ (5)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봐도 그렇고, 방과후 학습을 선택할 때 자율성이 주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조례가 사교육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네, 교육청과 학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경감됐다고 홍보하면서 만약 선택권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줄 경우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과후 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고교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 밤 10시-11시까지 지속되는데, 이를 마친 후 밤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과외학습에 나서죠.. 학원수업이 11시면 모두 종료되므로 이들은 개인과외를 찾을 수밖에 없고 학원 등에서 보충수업을 받던 예전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개인 과외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대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도 정규교육과정외 수업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세대의 자녀는 보충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겠지만,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학습기회를 점차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적·사회적·국민적 요구에 근거한” 방과후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이 ‘자율’이 아니라 ‘강제’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비는 더 증대되고, 학습환경은 환경대로 초토화되고, 약자와 강자간의 교육격차와 계층간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6) 대부분의 학생, 다수의 학부모가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이 의원님 부산시 교육감은 왜 재의를 요구한 건가요?

이/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주요 이유를 보면 교육감의 권한 침해, 학교의 자율재량권 침해,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의 자율재량권 침해 등은 교육청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가 배경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조례안을 재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을 위배하거나 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감의 재의 이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는 부산교육의 변화와 공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C/ (8) 부산시 교육청의 재의가 있었긴 하지만 부산시의회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여전히 학습 선택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신 거죠?

김/ 네,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감님께 학부모의견을 전하는 성명서 발표와 일인시위를 하고 있구요.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함께해 달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서면 일대에서 매일 서명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회원대상 및 거리 서명을 열심히 받고 있고 의회에 이 조례 재의가 안전으로 상정되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무조건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공청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위한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스스로를 조절하고 책임지는 자세도 있었어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는데 어떤 장치가 있는지도 질문을 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말하더 라구요.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판단하여 혼란을 먼저 내걸고 공론화를 막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MC/ (9)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요?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상황인데도, 조례제정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이/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시기는 본회의 일수 기준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으므로 10월까지 하면 되는데, 지난 3일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의결 시기는 의장단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학교의 방과후의 교육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자유롭게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육적인 행태, 실적위주의 교육행정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재의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MC/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습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돼, 정말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이일권 의원님, 김정숙 정책실장님 고맙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작하여 방송되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으로 7월 2일 부산mbc방송되었다.방송이후 7월 24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되고 말았다.

언론사마다 시의회의 무능함과 철학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열심히 서명활동, 캠페인을 진행한 우리단체와 함께한 시민단체, 시의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 이내훈 회원을 만나다

가족의 소중함을 으뜸으로 치는 이내훈 회원을 만나다

찌는 듯한 무더위속에 우리 사무실을 찾아 주신 이내훈 회원이 이번달 탐방의 주인공이다부산지하철 근무하시는 회원께서 이번주가 야간 근무라 낮시간에 사무실을 찾아 주셨다.

이내훈 회원이 삶아 오신 옥수수와 시원한 콩국을 먹으며 김정숙 실장님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언제 옥수수를 삶아서 가져 오셨어요?

A: 어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올림픽 스위전 축구 보면서 먹으려 삶은 건데 조금 가져왔어요.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Q: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는 편이네요?

A: 딸은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아들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딸에게는 기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줍니다. 학교의 학보사 기자, 군대의 정원장교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찾아보고 권유해 줍니다. 받아 들이는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결정하는 편입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 서로 대화하면서 조절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어릴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아빠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엄격하게 대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자녀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면서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정보나 자료,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Q: 주로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러면 엄마의 역할은 어떠신지요?

A: 아내는 대체로 제게 맡기는 편입니다. 그전에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지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결정을 한 후에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아내는 바쁘기도 하고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말을 하는 횟수보다는 적게 하는 편이지요.

Q: 부부간에도 대화가 많은 편이신 것 같은데 연애 결혼하셨나요?

A: 누나의 중매로 결혼을 했지요. 같이 살면서 등산도 같이하고 자전거 타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지요.

사촌 형이 사이클 선수였어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릴때부터 스포츠 선수였던 형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접하게 되었고 아내도 좋아하니깐 함께 많이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힘들게 오르막을 오르고 내려올 때 성취감과 상쾌함을 즐기게 됩니다.

아이들 어릴 때 7년전 쯤에는 온가족이 자전거를 차위에 싣고 전라도로 경상도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 계실때는 주로 등산이나 목욕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침은 아내가 준비하고 저녁은 어머니가 준비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니깐 말하는 것부터 행동이 좀 예의바르고 어르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Q: 부산지하철에 근무 하시지요?

A: 87년 기계과에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89년부터 노조활동을 했고 지부장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젊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크게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할 시절에는 집안 어르신들의 반대가 심했지요. 하지만 아내는 제 활동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어 잘 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사회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 제게는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노조활동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자신의 책무가 우선되고 그 바탕위에 노조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참학에 가입하시게 된 동기는 뭔가요?

A: 참학 사무실을 찾게 된 것은 아들에 대해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해서 오게 되었지요. 회원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했지만 우선은 제가 마음을 비우고 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니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Q: 현재 참학의 역할은 무어라 생각하시는지요?

A: 주변에 자녀문제, 교육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학’을 소개하게 됩니다.

참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고 권유합니다.

저도 처음에 참교육학부모회 중앙으로 연락했더니 부산지부를 알려 주어서 오게 되었어요.

어린 자녀가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선뜻 학교에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그럴 때 참학이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참학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요?

A: 우선 참학 사무실에 회원들이 많이 모였으면 합니다. 소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활동가들이 왔다갔다하고 활기있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수시로 와서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참학이 되면 하고 바랍니다.

이내훈 회원님

몇 번 뵙지는 않았지만 늘 편안하고 여유있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바쁘신 중에서 사무실에 들러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함께 점심식사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회원만남의 날이나 다른 행사에 참석하셔서 회원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금의 모습처럼 앞으로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회원으로써의 활동도 기대해 봅니다.

〈신지원 홍보출판부장 대신 박선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차승환 (금샘초등5)

수수경단 만들기

수수경단을 먹어보니 다음에 엄마랑 같이 만들어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수수경단을 10살까지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고 그 이유는 귀신이 접근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지유 (금샘초등5)

수수경단은 맛있다

요리하는 것도 진~짜 재미있고 수수경단이 참 맛있다.

엄마 아빠가 드시면 맛있다 하실 것 같다.

내가 직접 만든 수수경단이라.....

쫄깃하고, 고소하고.....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녹색식생활 체험학교에서 수수경단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한 태 경 (금창초등4)

참학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저는 이번에 엄마를 따라 참학회원 모임에 가게되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모임을 할 때 형과 나는 야외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 있었는데 참 흥미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 체험은 각종 청량음료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환타, 파워에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음료에는 많은 색소와 향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음료에 화학 약품을 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파워에이트에는 더 많은 화학 약품이 들어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색소에 어떤벌레를 갈아서 만든 색소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스크림은 물, 유지방, 설탕으로 만드는데 다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유화제를 넣는다고합니다. 유화제란 화학물질로서 신장장애를 일으키며 발암물질과 각종 중금속, 화학물질이 우리 몸 속으로 쉽게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가지고 그림까지 그려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불량식품을 안먹어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나쁜식품을 만들지 말고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불량식품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불량식품의 단속을 강화하고 또, 업체들이 비밀로 하는 것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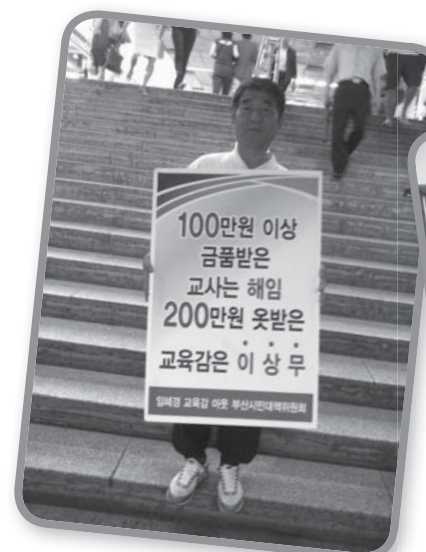
이 강의를 해주신 김혜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글을 쓴 태경이는 남경하씨 자녀입니다. 이번연수에 형이랑 함께 참여했어요. 현장체험학습이라 느낄 만큼 프로그램이 좋았나봅니다. 프로그램 진행해 주신 김혜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사진



지방분권실현 기자회견 ▶



▲ 임혜경교육감 아웃 일인시위-이규남



▲ 민주공원 청소년논술 본선진출자간담회-시민운동과 정치



▲ 교육혁명대장정발대식



▲ 노영민 회원 시집출판기념

2012 지부연수 '나는 참학회원이다'



리딩으로 리더하라

- 이지성 -

손재광

#(리딩멘토 이지성과 인문학자 황광우와의 인터뷰)

Q 인문고전 독서를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A. 이지성

“서당 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 합쳐서 무려 12년이나 교육을 받고도 지적이고 창의력 넘치는 인재가 되지는 커녕 바보가 되어 사회에 나오고, 심지어 대학 4년을 다시 배우고 해도 제 앞길 하나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배우면 배울수록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기 일쑤인 것은 바로 프러시아에서 시작해서 일제를 거쳐 여지껏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 시스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었던 이 공교육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도 진정 두뇌와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인문고전 독서의 진정한 목표는 생각의 혁명입니다. 인문고전 독서에는 두뇌를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인문고전, 특히 철학고전을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뚫다면 그 사람의 두뇌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인문고전 독서를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두뇌가 혁명적으로 변화합니다.

Q. 이 책을 접한 독자들 중에는 인문고전읽기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그 자체의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책 읽기의 즐거움이 오히려 고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A. 이지성:

아무래도 이 책을 자기계발서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6개월 동안 힘들게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찾고 사례를 든 것은 고전을 읽어서 두뇌가 변화하고 천재가 되고 위인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퇴계 이황처럼 여유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독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황광우:

사실 고전읽기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삶을 철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살라는 대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사는 삶을 벗어나 내게 중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모든 고전은 현실과 싸우고 부딪치고 고민한 결과물로서, 과거의 것이지만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여는 힘을 가진 살아있는 문제작입니다.

최근 <고전혁명>이란 책을 공동으로 내셨는데 혁명'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지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혁명은 세상을 뒤엎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뒤집는 일입니다.

불확실의 시대라는 21세기 지금, 몇 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더욱 불안해졌고 그 불안과 불황 속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중심에 굳건히 서는 나'자신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고전 속의 지혜가 나의 내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자아혁명이 되어야만 진정한 삶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황광우:

인간의 존재를 휘몰아가는 것은 시대 상황입니다.역사의 강물에 휩쓸리는 실존 속에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성씨 표현대로 고전은 시대를 돌파해 온 생각이고, 이러한 고전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달리 생각하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과정이 고전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전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의 근원적 가치에 대한 사유로서의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책 속에 소개하신 왕안석의 명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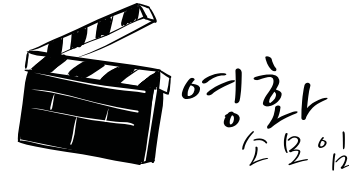
“빈자인서부 부자인서귀”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부자는 독서로 귀하게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말대로 되기를 바라신 작가의 진심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지성:

저의 이 부족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인문고전 독서의 전통이 되살아나는 데 제발 손톱만큼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를 보고

글 : 백 미 영

‘소설가 길과 약혼녀 이네즈의 동상이몽 파리여행.

약혼녀 이네즈(레이철 맥아덤스)와 파리로 여행 온 소설가 길(오웬 윌슨).

파리의 낭만을 만끽하고픈 자신과는 달리 파리의 화려함을 즐기고 싶어 하는 이네즈에게 실망한 길은 결국 홀로 파리의 밤거리를 산책하게 된다.

매일 밤 12시, 시간을 넘나드는 로맨틱 야행이 시작된다!

열두시 종이 울리는 순간 홀연히 나타난 클래식 푸조에 올라탄 길!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1920년대 파리! 그곳에서 그는 평소에 동경하던 헤밍웨이, 피카소, 달리 등 전설적 예술가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밤, 꿈같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헤밍웨이와 피카소의 연인 애드리아나(마리옹 꼬띠아르)를 만나게 된 길은예술과 낭만을 사랑하는 매혹적인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

과연, 세기를 초월한 사랑은 이뤄질 수 있을까?

위 줄거리 내용(소설가가 아니다)과 예고편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재치가 넘칠 것 같았다. 파리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았다.

예상대로 파리는 곳곳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러나 영화는 조금 덜 재미있었고 생각보다 조금 밋밋했다. 너무 기대를 한 탓일까?

인물들을 한번 보자.

약혼녀의 부모.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인 그들은 정형적인 미국인의 틀이다.

비가 오면 더 아름다운 파리는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고 걷기에 좋은 파리 시내는 교통 혼잡한 도시일 뿐이고 프랑스에 와서도 미국 와인을 마셔야 한다. 또한 소비해야 할 것들은 싼 게 비지떡일 뿐이고 좌파에 가까운 프랑스 나라가 싫고 어쩔 수 없이 사업파트너로 왔을 뿐이다. 정치, 문화적인 면에서 갑갑한 존재들처럼 보인다.

약혼녀의 친구 연인. 지성인으로 잘나가고 프랑스대학에 초청돼 강연하러 왔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척’하는 지식인처럼 보이고 살짝 재수 없다.

약혼녀. 마냥 예쁘지만 현실적인 여자다.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실용적이고 현실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보통여자들의 캐릭터이기도 하다.

주인공. 약간은 몽상가이다. 잘나가는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가 순수문학에 가까운 소설에 도전하는 것이다. 미국을 벗어나 문화가 살아있는 프랑스에서 살기를 원한다.

파리 밤거리를 걷던 주인공 길은 신데렐라와는 다르게 자정을 알리는 12시 시계 종소리가 울리면 1920년대 파리로 여행을 떠난다.



간 큰 우리 이야기

-우리 학교 주변-

노영민 (신정고 교사)

며칠 전 테니스 운동모임이 있어 어느 중학교에 가면 서 본 장면이다. 지은 지 제법 되어 보이는 5층짜리 아파트 단지 근처에 아파트 안전 검사 통과를 축하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그렇지, 안전 검사에 통과했으니 축하할 만하지.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도 덩달아 축하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펼침막을 건 주체를 보니 무슨 무슨 아파트 재건축 위원회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파트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니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축하 펼침막이었던 것이다.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게 아니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안전하지 못한 것을 축하한다? 세상에,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단지 내에 사는 쥐도 고양이도 흔비 백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칠 것 같은데, 단지 내의 세탁소도, 아파트 입주민도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다. 이 어찌 간 크다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이야기야 나도 그냥 해보자고 한 이야기지 내막을 몰라 하는 건 아니다. 한 동안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유행한 적이 있지 않았나. 사실 진짜 간 큰 이야기는 세상 도처에 널려 있다. 이걸 다 쓰려면 제법 긴 지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호에는 우리 학교가 위치한 정관 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 큰 이야기를 두어 가지 하려고 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학교 주위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년에 입주하는 세대 수가 3,000여 세대가 넘는다고 한다. 이곳에는 지금 두 가지의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76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 통과를 둘러싼 싸움이고, 또 하나는

설계 수명인 30년을 넘겨 5년째 가동되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폐쇄와 재가동을 둘러싼 싸움이다. 1년 사시장철 학교를 그것도 4년 동안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나는 이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짐짓 무심한 척 하고 있는 것은 내 뜨내기 근성 탓일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는 결코 이 동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데도 말이다. 아무튼 속으로는 이 문제가 주민들 뜻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니면 비겁한 줄 알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먼저 초고압 송전선 통과 저지를 위한 싸움. 작년 3월 내가 학교에 부임할 때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마다 안전성 보장 못하는 초고압선 통과를 결사반대한다는 빨간색의 펼침막이 붙어 있어 인상적이었다. 명품 생태 신도시를 만든다 해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하는 펼침막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교실에서 이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도 상당히 높아서 저 정도면 주민들이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지금도 싸움은 진행 중인데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망월산, 백운산 등에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엄청난 크기와 높이의 송전탑이 이미 건설되어 송전선이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싸움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기가 그간 우리는 '세계 최초, 최고, 최장, 최대'를 얼마나 좋아해왔나. 무소유를 내건 사찰도 세계 최대 불상 조성에 목숨을 걸고 교회는 세계 최대의 신자수를 자랑해오지 않았는가.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76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을 얼마나 건설하고 싶을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참 간도 크다

그 세상에서 현대에서 평가 받기 싫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자신의 소설의 평가를 맡기고, 헤밍웨이를 만나고, 달리를 만나고, 피카소를 만나고, 여러 예술인들을 만나 같이 춤추고 술 마시고 즐긴다. 그런 가운데 피카소와 헤밍웨이의 연인인 여자 애드리아나와 사랑에 빠진다. 현대에 와서는 매일 밤 사라지는 예비사위에게 예비장인은 사람을 붙이고 약혼녀와는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옛 예술인들의 노래와 책들을 파는 거리를 배회한다.

길은 1920년대에서 애드리아나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1920년대의 문화에 빠진다. 그러다가 이 연인은 우연히 1890년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고갱과 드가 들을 만난다. 애드리아나는 1890년대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를 찬양하지만 1920년대보다 더 매력적인 1890년대에 빠지고 1920년대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진다.

현실로 와 결국 길은 혼자가 되고 프랑스에서 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벼룩시장 같은 옛 물건들을 파는 골목에서 만났던 여자 점원(콜 폴터로 그들은 통했다)과 우연히 비 내리는 아름다운 밤 파리 다리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사랑을 예고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우디 앨런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잘나가는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에게 어려운 소설을 쓰겠다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순수문학을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나도 가끔씩 생각한다. 위문학과 자기계발 책으로 넘치는 세상, 인문학은 진정성보다는 지식으로만 취급당해 버린 세상, 기호만 맞추는 드라마, 대형영화에 목숨 거는 세상...

그런 세상에 진지하고 근본에 충실한 소설, 인문학, 드라마, 영화를 꿈꾸기도 한다. 우디 앨런도 그런 것일까? 그러면서도 1920년대 예술인들은 독설가예, 기분파예, 조금은 툭툭 튀는 모습들을 그려놓았다. 물론 그 속에 진정한 평가와 독려, 상상력이 숨어있다.

그런 이들도 1890년대를 동경하고 1890년대 예술인들은 또 그 앞 시대를 찬양한다. 어찌 보면 옛 시절이 좋았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원리와 닮았다. 우디 앨런도 옛 시절이 더 좋았고 르네상스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적어도 진지했고 동료들과 뜨겁게 논쟁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랑. 아름다운 파리에서 사랑에 안 빠진다면?... 결국 사랑도 자신과 비슷한 생활과 문화와 지성과 감성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일까?

이 영화는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 내가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난 정조시대로 가고 싶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시대. 백담파(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등)들과 달빛 아래에서 술한잔 나눌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765,000볼트 송전선 건설과 맞물려 있으면서 간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 정관 신도시로 들어오는 길목의 하나인 곰내재 터널을 빠져나오면 까만 바탕의 펼침막이 눈에 들어온다. 그 펼침막에는 IAEA(국제 원자력기구)와 한수원(한국 수력원자력발전)은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 두고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이다. 설계 수명은 30년, 그러니 2008년에 수명을 다 했으나 다시 10년 가동 연장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비유하자면 자연 수명은 다 했으나 약물 또는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셈이라 할까. 그러나 그간 수많은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부품 납품 비리에 노심용융의 위기 상황까지 갈 뻔한 큰 사고가 있었으며 그 사실을 한 달 정도 은폐까지 한 것이 드러나 지금은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핵 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 긴 이야기는 그만 두고 주민들-여론 조사 결과로 보면 사실상 부산 시민 절대 다수-뜻대로 당장 폐쇄해야 할 이유로 내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워 보이는 근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집사람은 유통 기한 지난 식품은 자기는 물론 아이에게 절대로 안 먹인다. 하루 이틀 지나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면 나보고 먹을지 넌지시 묻는다. 그때는 천생 악처인 셈인데, 그럼에도 내가 안 먹는다고 하면 단호히 폐기한다. 우유, 두부, 콩나물 등 식품의 유통 기한 지키는 일에 이리도 철저하다. 아깝다고 유통 기한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릴 수는 절대 없는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은 우유를 비롯한 식품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고리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300만이 넘는다. 그러니 당연히 고 설계 수명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산정해서 정한 것일 거다. 그래서 정한 것이 30년! 더 이상 연장이니 뭐니 할 수 없는 거다. 설계 수

명은 고무줄이 아니다. 설계 수명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 없는 수자라면 처음부터 40년, 50년, 100년으로 늘려 잡아도 된다는 말 아닌가. 진짜 간 큰 사람들이다. 악처에 빗대 말한다면 정말 악덕 정부다. 그렇게 수명을 연장하는 이유를 나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은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 폐기물을 처리할 방도가 없고,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엄청난 폐기 비용과 기간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이 가능할 법한 일인가. 인간이 농경과 사육을 시작한 신석기 혁명이 길게 잡아 고작 1만 년, 단군의 고조선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 했을 때 고작 4,000년 남짓인 것을 생각해 보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자랑해 왔는데 그게 거짓말인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이 어찌 간 큰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소냐.

요즈음은 잘 안 쓰이는 것 같더라만 내가 크던 시절의 험한 욕 가운데 “간이 배 밖에 나온 놈!”, “간덩이가 부은 놈!”이라는 게 있었다. 요즈음 그 말이 잘 안 쓰이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져서 그 말의 효용성이 없어졌든지 아니면 모두가 그런 수준에 가버려서 그 말 쓰기가 너무 싱거워서든지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어느 쪽인지 나는 판단이 잘 안 된다만, ‘배 밖에 나온 간’, ‘부은 간덩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간이 큰 사람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럼 나는 어떨까. 내 간은 정상인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별 생각 없이 에어컨과 난방기에 의지하고, 자가용의 편리성에 중독되어 있는 나를 이 번 기회에 크게 반성하면서, 명말청초의 유학자 고염무가 했다는 “천하 흥망에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리며 걷는 속 깊은 사람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독일이 2022년까지 1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일을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무언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이번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 - 예산 결산 소위원장되다 -



이 규 남

학교 예산이 결정된 뒤에는 예산 편성의 허점을 발견해도 수정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산을 짤 때부터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미리 점검을 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이노무 학교에서 저를 소위원회 넣지 않으려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예.결산 소위원 구성이 있기 전 회장 어머니(운영위원겸직)와 만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마침 회장 어머니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예.결산 위원 학부모 몫으로 현 학교 부장교사의 부인이며 학부모 운영위원인 S위원을 내정을 해놓고 학부모 위원들에게 통보해서 S위원을 소위원으로 뽑을 걸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위원회회의가 시작되고 보니 학부모위원은 저와 회장 어머니 이렇게 달랑 두 명만 참석을 하고 회의가 시작됩니다.

차례가 되어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부모 몫을 뽑아야 하는데 학부모가 참석이 저조하니 학교에서는 난감하나 봅니다.

교사위원이 학부모 몫으로 회의 참석을 안 한 S위원을 추천 합니다.

〈옹 부정교사〉

“예.결산 소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S위원을 추천 합니다. 본래 맡아 주시로 하셨는데 오늘 회의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회계에도 밝고 하시니 오늘 오시지는 않았지만 말기시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S위원을 뽑았으면 합니다.”

〈회장 학부모위원〉

“S위원이 잘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만 이후라도 예.결산 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학부모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하지않고 선출을 해서 자칫 시간낭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참석한 학부모 위원이 있으니까 참석위원 중에서 맡을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없다면 S위원에게 부탁을 해도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죠.”

〈옹 부장교사〉

“일전에 제가 S위원에게 예.결산 위원을 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말기로 하셨는데 오늘 참석을 못했지만 말기시면 해 주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회장 학부모위원〉

“그래도 그건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에도 불참하신 걸 보면 예.결산 위원을 안 맡을려고 일부터 안 오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S위원에게 전화를 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나 S위원은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몇 차례의 설전들을 저는 지켜만 보고 있다가 제가 운영위원장에게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결산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송도상고나 영남 상고라도 나왔으면 잘 할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학교 회계를 잘은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행정실장에게 물어서라도 제가 한번 해보죠. 오늘 참석도 안한 S위원에게 억지로 맡긴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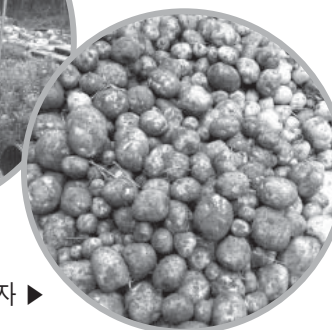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이 탄생시킨 공동생명 (2012년 7월 1일)

그냥, 마냥, 정말로! 좋았어요.. 불과 100일 만에 얻어진 감자, 자연의 힘에다 인간의 땀을 보테니 풍성한 먹거리가 생기는 것을 한동안 잊고 지냈었네요. 어린 왕자가 소혹성에 두고 온 장미 한 송이를 그리워 우는 것 처럼 저도 감자 앞에서 그러고 싶었네요. 자연에다 흙에다 다시 잃어버린 텃줄을 찾아 뿌리처럼 내리는 기분이에요.. 감자 캔 기념으로 두술 써서 다른 텃밭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점심은 모두 예술 활동의 무대예요. 집에서 소스 만들어와 샐러드 해주시 에너지팀 감사해요. 중요 일꾼들의 사회활동 때문에 남자 일꾼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김석준 교수님 감자 저다 주셔서 감사해요. 고구마 더 심으라고 순 잘라주신 분 감사해요. 날씨가 더워 여름 한 조각 입에 물고 싶다고 전하자 마트에서 얼음 두 봉 사서 아이스박스 주워서 그 속에 담아서 한 시간 넘게 달려와 이고 올라온 미옥님 넘넘 감사해요. 팔빙수 재료 사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냄새 맡아서 죄송해요 농장주님! 이 모든 이들과 30여명이 산속에서 먹는 팔빙수는 천국의 맛이었어요... 쓰러진 사람(?)도 벌떡 일어났지요ㅋㅋㅋ 이렇게 즐거운 날 아무 만 씨는 특근을 했대네요 그 이유가 궁금? ㅎㅎ 이렇게 나누는 마음들이 예뻐서 비온다한 하늘도 하루 연기하고 내려오는 길 노을도 선물해 주었답니다. 감자 캔 발에는 김장 심기 전 잠깐 틈이 있어서 열무와 얼갈이 배추, 파를 심었어요. 지난주에 심은 콩은 조정화 콩 어머니께 어찌나 깎듯이 인사하는지 이쁘다고 심은 콩 마다 호미로 쓰다듬어주는 모습은 천사였네요. 다음주에는 어떤 모습들을 하고 기다릴지 궁금해요. 우리의 곡식이 아니라 자식들이요. ㅎㅎ



◀ 감자포대이고 오는 박선희



우리밭의 감자 ▶



▲ 감자캐는 김석준, 조정화, 박선희

학교에서는 똥썰은 얼굴이지만 저가 직접 한번 해보겠노라 나서니 학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가 예,결산 소위원회 위원이 되고 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는 협조적(?)이지 않은 운영위원을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직책을 맡기지 않으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운영위원장이나 '급식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등을 학교 말 잘 듣는 위원들을 뽑으려 애를 쓰지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 어머니를 미리 만나 협조를 부탁 했습니다.

“회장님 현우가 회장을 맡고 난 뒤에도 보십시오. 학생 자치회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한 푼이라도 쓰니까? 그리고 학예회예산 체육대회예산 이런 것들이 예산에는 들어가있지만 한 푼도 안 쓰지 않습니까? 또한 없는 운동부예산을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는 운동부가 만들어 질까하고 미리예산을 편성했는데 선수들을 모으지 못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소리를 매년 듣지 않았습니까?”

설득을 하니 수긍을 하고 저를 예,결산 위원으로 세우기로 하고 회장 어머니가 작업을 했습니다. S위원을 출석을 못하게 막고 학교요구에 엉겨주춤 손드는 위원들을 불참 하도록 만든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죄다 여성분이다 보니 남자인 저로써는 이만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자인 저가 여성인 위원들을 따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들은 서로 형아 동생아 하면서 대화도 찾아서 이런저런 대화들이 쉬운데 저혼자서 학부모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맥을 집었나봅니다. 특히나 아들이 학생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으로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비로소 눈을 뜬것 같았습니다. 이젠 아이가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학교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학생회장 어머니 학교에 한해 몇 천만원씩 발전기금을 내어 학교 내에 많은 일을 하게 했다는 자부심으로 산 어머니가 말년이 되니 후회를 합니다.

운영위원을 남자가 혼자하기에는 외롭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인 위원들과 일대일로 만난다는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학부모위원들끼리 사전에 의견들도 나누고 해야 회의에 들어가면 의견들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만들기 쉽지않으니 외로울 수 밖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을 뽑기위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 위원들에게 미리 학교에서 작업을 합니다. '누구를 위원장으로 뽑고, 부위원장은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 말들이 저한테도 들리니 도저히 묵과할 수 가없지요. 그래서 행정실장에게 가서 혼을 낸 사실도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요 운영위원장을 맡겨줘도 안 합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어렵고 저는 위원으로써 따져봐야할 것을 챙겨봐야 할 것이 많아서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이규남이는 위원장 뽑으면 안 된다, 부위원장으로도 안 된다' 하면서 학부모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합니까? 저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지 압니까? 한번 더 이따위 소리가 저한테 들리면 그냥 안 있습니다. 저는 시켜줘도 안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한번은 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저가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떨어졌죠.

그 전에는 편의상 위원장에서 떨어진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장교사 올”지역위원인 남자가 위원장이 되었으니 부위원장은 여자가 말아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 물먹입니다.

이렇듯 학교에서는 저를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 어긋나면서 술한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우쨌든지 저는 예,결산 소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예,결산위원 분투기는 다음 글에서



수확의기쁨에 이어 이제 발칙한 생각을 (2012년 7월 8일)

이제 뜨거운 여름이라 해거름에 모여 작물을 돌보기로 했다. 농장에 도착하면 모두 밭에 오르기 바쁘다. 서둘러 올라간 농부들이 탄성을 지른다. 주렁주렁 열린 가지가 이번 주는 우리를 대표로 맞기로 한 모양이다. 줄기 앞 열매 모두 짙은 보라색으로 치장하고 줄서서 기다린 모습에 고맙고 감사하다, 한 바구니 따서 머리에 이고 내려오는 선희 농부는 입이 다물어 지질 않는다.

지난 주 뿌린 열무 줄서서 웃고 있고 제일 작물의 막내 모습에 귀엽다고 모두 앉아서 눈맞춰 주었다.

점점 더 많이 붉은 자태를 드러내는 방울토마토 밭에 설치 미술 작품을 보는듯하다. 잠깐의 수고로 이렇게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연의 도움에 감사하고 고맙다.

함께 웃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빛어진 열매를 얻는 순간 이 감동을 계기로 제안을 해본다.

참교육속에 아이들이 학교 텃밭을 가꾸며 돌보고 배려하고 스스로 얻는 열매에서 기쁨으로 따뜻해지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싶다. 학교마다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학년마다 작물을 길러 급식에 나누어 먹는 활동을 전개하고 싶다. 자연이 길러내는 신비를 맛보며 마음과 영혼이 맑아 질거라 믿는다.

이제 다음 주는 옥수수가 우리를 설레게 할 것이다. 붉은 수염은 립스틱 처음 바르는 가시내의 부끄러움처럼 앙증맞다.

고수 몇 포기 진한 향을 낸다. 산사의 스님들은 즐긴다 하나 세속의 남자들은 무서운가 보다. 그래서 꽃송이도 아주 작게 하얗게 피어 숨어 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작은 것의 소박함에 행복해진다.

내 손으로 생산한 작물을 나누어 먹는 기쁨 밤하늘 별이 웃어준다.

파랗게 맑은 마음 한아름 지고 오는 귀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 일주일남에 이만큼 올라온 열무

▲ 수염이 다자란 옥수수

◀ 방울토마토를 따는 조정화

▲ 가지를 한아름안은 곽선희

(2012년 7월 15일)

금요일부터 내리는 비가 토요일 저녁부터 폭우가 되었다. 텃밭 가는 날 오후부터 비가 적게 내린다하였지만 집을 나서서 시간에도 비는 그칠 기세가 안보였다. 범어사역 마을버스 타는 곳에서는 비가 개였고 김옥랑만 빼고 모두 모여 같이 산을 올랐다. 계곡에는 물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물살이 빨랐다. 많이 내린 비로 길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올라가는 길은 전과 다름이 없어 안심이 되었다. 지킴이 개도 안보이고 멀리 보이는 밭에 지지대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우리 밭도 걱정이 되어 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가지, 방울 토마토가 쓰러져 있었다. 약한 대는 다시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서로 끈을 묶어주었다. 고추도 가지도 따고 나면 다시 조롱조롱 열리는 게 예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비 온 뒤에 밭일하는 게 맞는 거 같았다. 넘어진 것도 손보고 풀을 뽑기도 수월했다. 싹이 난 열무는 솟아주었더니 몇 바구니나 되었다. 가는 비를 맞으며 밭 손질을 다하고 앉았는데 비가 쏟아졌다. 때마침 잘했구나 싶었다. 산 아래에서 많은 비에 산위 텃밭을 걱정했다고 하자 텃밭주인은 산 아래를 염려했다한다. 엄청 쏟아지던 비도 조금씩 빗발을 멈추고 나무 사이로 산안개가 피어올랐다. 언제 다시 비가 내릴지 몰라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오늘은 많은 비에 텃밭가는 걸 망설였는데 오기를 잘한 거 같았다. (옥랑 농장팀장이 못와 조정화님이 쓴 일기입니다)

마음 약해서.... (2012년 7월 22일)

분명 지난번 식구들이 작물들에게 다음 주에는 못 온다고 일렀을 것이다. 금요일 오후 지부장님 부부가 연수에 오는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가지, 깻잎, 호박잎, 토마토, 상추 방풍잎을 비에 망가진 산길을 올라가 얻으며 속삭이고 왔을 것이다.

통도사 연수를 마치고 농장 가족들은 피곤을 감추고 서로 눈빛으로 물었다. 이번 주 농장에 못가면 장마 뒤라 풀이 엄청 자랄터인데 ...

갑시다!!! 남은 찬밥 나물 거기 가서 비벼 먹고 하여 둘러메고 손님 까지 모시고 올라갔다. 그 순간 작물들의 표정은 힘이 솟는 듯 했다. 엄마 없이 한주를 잡초와 다투려했던 얼굴에 우쭐감까지 읽을 수 있었다.

하얗게 핀 박꽃 한 송이, 노랗게 핀 수박꽃, 노란오이꽃,, 부끄러워 몸을 비비곤 오이..

제일 먼저 빨갛게 익어간 고추 딱 한 개를 보고 정화님의 어머니! 탄성에 다들 또? 개가? 놀람 뒤에 웃음은 피로 뒤에 보약이다.

다들 연수준비로 힘들었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작물들 얼굴 보고 손잡고 내려오는 마음은 가벼웠다. 가지 네 개 등에 짊어지고 와 자식에게 반으로 갈라 예쁘게 칼집 넣어서 올리브오일에 소금 후추 뿌려 구워주니 다



시 한번 탄성이 들린다! 엄마가 직접 기른 채소 맛은 예술입니다!!!

어린 열무는 벌레가 많이 먹어 성숙하게 키워주지 못하고 모두 뽑아서 열무김치 달인 집으로 데려갔으니 열무비빔 국수가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정숙, 정화님한테 연락하이소.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ㅎㅎㅎ



▲ 우리 농장 풍경



▲ 하얀 박꽃이랍니다

박꽃과 달빛의 연정 (2012년 7월 29일)

“올해도 박 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러나, 뽀얀 하얀색 꽃송이는 입을 다물고 자고 있었습니다.

박 꽃은 밤에 활짝 피었다 낮에는 꽃잎을 썩 오므리고 속을 보여 주지 않기에 어쩌면 자존심 강한 여인인 듯 했습니다.

은은한 달빛하고만 연애하다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기 싫어 입을 꼭 다문 모습은 건드리기조차 야무져 보였습니다. 텃밭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놓고 기다리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평화로워 집니다.

짧은 시간에 작은 수고로 얻어지는 큰 기쁨은 농부만이 얻는 행복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옥수수를 수확해서, 껍질을 벗기고 보니 알알이 웃고 있는 얼굴들은 가난한 날의 웃음이었습니다.

고향이 강원도라 감자와 옥수수가 내 이름 앞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어린 날 옥수수는 배고픔이고 배아픔이었습니다. 이 맘 때면 자주 저녁을 옥수수와 감자를 찌서 두레반에 둘러 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먹던 기억이 슬프게 다가와 혼자 싸하게 아려오는 가슴으로 웃었습니다.

가지도 이제는 힘을 다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숨 가쁘게 키워낸 가짓대가 출산 후의 여인의 얼굴 같아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나중 토마토 대와 옥수숫대 그리고 가짓대 고춧대를 잘 마무리 해주고 싶은데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듯합니다. 담장 사이에 까마중이 한 그루 실하게 크더니 까만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선희씨는 곱게 따서 골고루 한 입씩 넣어 주고는 아토피에 좋다는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잎을 채취해 죽염을 섞어 찢어서 몸에 발라 주면 좋다 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는 자연의 힘을 우리는 소홀한 눈으로 건성건성 대하며 살아온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가꾸는 작물도 그 속에 함께 자라는 잡초도 우리에게서 더없이 소중한기에 풀을 뽑다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그리고 칠월의 마지막 날 쓰는 농장 일기는 조금은 슬픔입니다. 가을이 너무 빨리 올 것 같아서입니다.

어린 연두빛과 푸른 초록이 서서히 붉은 가을로 다가오리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키워낼 작물이 많이 기다리기에 이 밤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해 잠들려 합니다. 김장을 많이 심어 함께 나누지 못한 식구들에게 멋진 김장 김치를 나누어 줄 꿈을 안고서.....



▲ 농장의 밤



▲ 목욕하는 김옥랑



▲ 박선희,김정숙,김혜례,김옥랑,김종만



회원연수를 마치고

● ● ●

조정화

참학 상반기연수를 중간보고와 함께 한다고 했다. 회의는 재미없지만 좋은 지인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 하루 전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회원이 내어준 통도환타지아 콘도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원자력 반대 1000인 인간띠 사진을 한 명씩 찍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온 회원들은 바깥 놀이를 하고 들어왔고 그렇지 않은 회원들은 쉬면서 가볍게 술도 한 잔씩 했다. 김옥랑이 준비해온 나물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어른들은 방에서 회의를 했다. 처음 회의에 참석한 나는 준비해온 두툼한 자료에 약간 현기증이 났다. ‘저걸 언제 다하노’ 자료에 있는 내용은 상반기 참학이 한 일에 대한 보고였다. 먼저 회원 소개를 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한 일에 대한 경과보고와 반성이 있었다. 후원만하는 회원이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만남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지가 오래되어 잊어버리고 있던 문제들이 다시금 내 앞에 펼쳐졌다. 급식 문제, 수학 여행 문제, 방과 후 수업 문제, 발전 기금 문제 등이었다. 학부모로 학교일을 한 회원은 학교보다 학부모가 더 문제라고 했다.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했다. 학교, 학생, 학부모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 학교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학교도 건강해지는데 공부로 줄을 세운다. 사회생활은 공부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데도 무시하고 공부 잘하는 걸 추켜세운다. 누구 하나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거 같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가야할 길이 멀지 않을까?

상반기 연수를 통도사에서 보내고..

● ● ●

김옥랑

가족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말들로 줄을 세운다면 앞에 세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해마다 여름 연수를 임원들만 모여 상반기 평가를 하던 것을, 올해는 마음 넓은 회원님의 후원으로 통도사에서 온 가족을 다 초대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설렘은 또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같은 부산 울타리에서 마음은 하나이나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늘 그리움을 남겼었는데 이름과 얼굴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소중한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방학시작 날이라 아이들과 함께한 만남은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인 대가족이 잔치가 되었고 영취산 자락의 산바람도 함께 하기에 그 분위기는 통도사 큰 절을 배경으로 참으로 넓은 마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들은 놀이공원에서 나이를 잊고 수영과 놀이기구에 취해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처음 만난 아이들은 하나가 되어 가족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먹는 저녁 비빔밥은 한 끼의 식사보다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비는 정,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는 재료들의 조화가 바로 우리라는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이 생기게 했나 봅니다. 상반기 두툼한 평가 자료를 전화와 문자로 씨름하고 용량이 부족한 컴퓨터와 복사기로 엮어진 것을 보며 그것을 만들어낸 어느 미모의 여인들은 참으로 쳐다보기 민망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모두의 마음들 고맙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과 힘이 담겨져 있는 자료집엔 한 사람 한사람 참교육을 위해 흘린 땀과 정성이기에 더욱 눈길이 자주 머물렀나 봅니다. 아이들에게는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작은 실험과 영화를 보게 하고 어른들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던 시간위에 많은 일들을 해놓았기에 회의 시간도 길어졌고 모두 참학 가족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자는 것이 이번 연수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부산 교육감의 일 부터 학생 학습 선택권 조례안 재심의를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사안들은 참으로 갑갑함이었고 교육에 연관되지 않는 시민이 누가 있으련만 외로운 참교육을 향한 몸부림은 이 땅에 없는 고립의 섬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의 폭력 그리고 일 부 학교 교사의 언어는 폭력 그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맡은 역할 업무를 설명하고 나뉘 평가하는 사안들에도 이해와 격려로 그리고 날카로운 자기 성찰도 부끄러움없이 드러내는 진솔함에 회의장은 숙연함마저 그리고 가슴 찡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폐기를 규탄한다.

-민의를 저버리고 비겁한 반대, 기권을 행사한 시의원은 각성하라!!-

2012년 7월 24일은 부산교육사에 가장 치욕스런 날임을 선언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교육을 뒷걸음치게 만들고, 그들 자신들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였다.

부산시 의회에서 그들 스스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다시 그들의 손으로 부결시킨 의원들을 과연 교육철학이나 소신을 가진 의원이라 볼 수 있는가?

이 조례는 하루아침에 열렁뚱땅 만들어지지 않았고, 수개월에 걸쳐서 학교현장의 설문조사와 교육청 담당자와의 업무협조, 의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조례이다.

함께 찬성 발의한 의원의 반대토론은 자신의 소신없음을 강조한 것이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검토한 교육청 담당자는 직무유기이며, 지역구민의 눈치때문에 기권을 행사한 시의원은 스스로 비겁함을 드러낸 행동이다.

시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는 말도 책임회피이다. 이미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자세한 설명서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토론문을 전의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조례 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인천에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여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가 되었으니 인천 꼴이 안되려면 이 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원의 발언은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인천의 조례시행과 지난해 수능성적결과와는 시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한 예를 들어 학부모를 우롱하고 지역구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이 조례안을 한 번 읽어 보지도 않고 수능 수시자료를 준다는 문자로 조직동원한 학부모들을 지역구민의 소망이라 어쩔수 없다는 의원들의 태도는 더 이상 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례제정의 정당함과 내용의 충실함을 인정하면서도 표를 의식하여 기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들을 응원하는 학부모가 몇 명인가? 그들 학부모들은 일인당 투표권이 100장씩이라도 된단 말인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서 지난 두 달 동안 거리에서, 모

다. 복지라는 이름아래 행정의 편의와 관료주의로 저 소득층 아이들의 하루가 힘겹게 지나간다는 말에 마음이 아파 입에 침을 모아 아프게 삼켜야 했습니다.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한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는 날이 올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참학이기에 함께 하며 치열하게 싸우지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표만 계산하며 흘리는 차가운 웃음을 이젠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회의하는 동안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는 참으로 소중한 맑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곁에 두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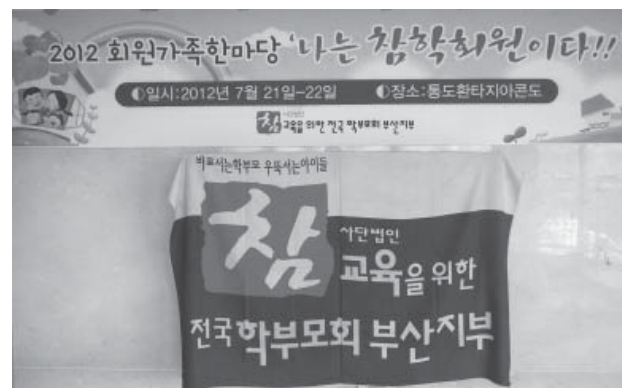
서너시간의 회의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풀이의 흥겨움으로 밤늦게 돌아가려던 회원들은 손을 잡고 마음을 묶어 놓고 함께 했기에 더욱 즐거웠습니다.

이른 아침 따뜻하게 식구들을 먹이려고 죽을 준비하는곽선희 지부장의 도마 소리는 참으로 정겹게 들리고 그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부산 참학의 어머니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밥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공주과) 참학 시민 단체라는 말 보다 참학 가족이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다시 내년을 기다리며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내년엔 모든 회원이 다 모이는 야무진 꿈을 꾸면서.....

(전국 연수는 가면서도 지부연수를 제대로 못한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콘도를 후원해 주신 박무준 회원 덕분에 가족한마당로 '나는 참학회원이다~'를 외치고 왔습니다. 40명이 넘게 참석하여 아이들 프로그램까지 준비하여 대학생부터 초등생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인증샷부터 시작하여 워터파크, 식품첨가물 실험, 4시간에 걸친 상반기 평가에도 다들 할 말이 남아...

해마다 여름연수는 회원 한마당으로 해야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벌써 내년 장소가 오르내리고... 준비해 주신 분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임에서 15000여명의 많은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 공감하고 그들의 사인을 받았다. 여기에 사인한 사람들은 그들 학부모들 보다 투표권이 적다는 말인가?

이 조례를 부결시킨 의원들은 조례 때문에 학교현장이 혼란스럽고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인천과 광주에 가보기는 했는가?

우리 부산의 조례제정에 다른 도시를 비하하여 학부모들을 호도하는 시의원들은 학교를 무엇이라 보는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장소이다.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가르치는 일도 학교가 해야 할 큰 임무이다.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이제, 이 조례를 반대한 일부의 학부모가 아닌,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과 시민들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에 경고한다!

비록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원들의 폭거로 폐기되었지만 부산지역의 학부모들은 강력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 더 이상 부산교육이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평가 때문에 방과후 참여수를 늘이고, 일제고사 성적 공개 때문에 방학중에도 초등학생마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반강제로 해야하는 기형적인 교육현장이 바로 서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12년 7월 25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동래생협,

부경대련,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교협, 흥사단, 학교사회복지사회, YMCA)

부산시민운동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지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시의회는 죽었다.”

무더기 기권으로 재의결 후 부결 사태를 빚은 ‘학습선택권 조례’ 표결에는 ‘국회의원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 의회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연말 대선 표심의 희생양이 되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 “앞으로 시의회 조례 안은 국회의원이 리모컨으로 표결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서병수(해운대기장 갑), 이진복(동래), 유기준(서구), 김세연(금정), 하태경(해운대기장 을) 국회의원 등은 지난 24일 조례 의결 전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6명) 또는 기권(18명)한 시의원 24명 중 이들 5명의 국회의원 지역에 속하는 시의원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당 2~3명으로 모두 11명에 이른다. “학습선택권 조례는 전교조와 학원 논리다.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 편을 들 수 있겠느냐. 반대 또는 기권하라”라는 게 해당 시의원들이 전하는 국회의원들의 전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학부모단체들이 찾아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고 학원을 가게 만드는 조례니까, 학부모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시의원들과 전화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 국회의원 모임에서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시의원들에게 한 번 얘기해보자고 해서, 시의원들과 상의를 한 것”이라고 말해 국회의원 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부산시당위원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점검 후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의장 등에게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것이고 또 공청회를 통하지 않으면 조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시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재의 요구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 때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면 일이 해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런 거면 시의회 안건도 국회의원이 의결하지, 시의원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씁쓸해했다. B 의원은 “사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번 조례 내용과 취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공천권을 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의원의 태생적 한계”라고 말했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1991년 부산시의회가 문을 연 후 지난 6월 말까지 의결한 전체 시 조례 건수는 모두 2천21건으로 이 중 재의를 통해 부결된 건수는 이번 ‘학습선택권 조례’를 포함해 21년 시의회 역사상 단 2건에 불과하다.

부산일보 / 2012년 7월 26일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부산시 학습선택권 조례 부결’ 코미디?

내용 모르는 국회의원 지시 따라 투표 · 버튼 조작 미숙도

지난 24일 부결된 ‘부산시 학습선택권 조례’는 내용도 모르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시와 버튼도 제 때 못 누른 일부 시의원들의 미숙함이 빚어낸 ‘부실’ 의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권을 지시한 A국회의원은 학습선택권 조례를 ‘야간자율학습 금지 조례’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논란이 된 조례 조항은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배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 현재 학교측이 교육청 평가 때문에 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A의원이 받아들인 이번 학습선택권 조례 내용은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교육단체와 부산시교육청이라는 ‘필터’에 걸려진 한차례 가공된 정보에 불과했다.

B시의원도 “지역 국회의원이 내용도 잘 모르고 기권하라고 권하긴 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와 달라 소신껏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회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기권 처리된 의원들 중에는 제 때 버튼을 누르지 못해 기권이 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 교육과 청소년의 미래를 놓고 부산정치권이 한판의 ‘코미디’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상당수 의원들은 “시의회의 무지와 무능함을 보여준 이번 사례에 대해 시의원인 나부터 부끄럽다.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문제는 다른 의원들도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또 “조례에 반대한 의원이 인천에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수능 성적이 최하위가 됐다며, 인천 꼴이 안 되려면 이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례는 지난해 11월 시행돼 지난해 수능성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의원이 잘못된 예로 학부모를 우롱한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부산일보/2012년 7월 30일/ 이현정 기자 yourfoot@

이 번달 최대 교육 기사는 학습선택권 조례 부결이었다. 참학에서는 적극 투쟁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부산일보는 부결된 24일부터 30일까지 매일같이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부산시민단체, ‘옷 로비’ 교육감 사퇴촉구

‘임혜경 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 축구 부산시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곽선희)는 24일 옷 로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사퇴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임 교육감은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육감직을 내려놓는 행동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긴 교육계만큼은 다른 어느 부문보다 평등하고 청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학부모의 소박한 바람”이라며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육감이 지난해 4월 전남 광주의 한 의상실에서 부산지역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 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것과 관련, 경찰조사에 이어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7월 24일



학부모알림란

◆ 열한 번째 ‘달밤트레킹’

● **걷는 날** : 2012년 8월 4일 토요일 저녁부터 5일 일요일 아침까지

● **걷는 길** : 낙동강의 끝자락(삼랑진에서 화명까지)

● 참가 준비물

- 참가비: 15,000원 (당일 지참)
- 오래 걷기에 가장 편한 신발과 여름 옷차림(트레킹화 필수, 반바지/반팔 복장, 모자는 필요 없음)
- 간식과 마실 물 충분히
- 개인 상비약(두통약, 바르는 모기약 등)
- 휴대폰 등 개인 전자기기 사용 못함

● 이들의 일정

날짜	시간	하는 일	
8월 4일	17:00	부산역 모임/ 출정식	인원 확인
	17:45	삼랑진행 열차 출발	
	17:59	구포역 경유	
	18:20	삼랑진역 도착	1.7km
	18:50	삼랑진 둔치길 도착 저녁식사	
	19:40	트레킹안전교육	
	20:00	낙동강 둔치 자전거길 따라 출발 40분 걷고 10분 휴식	18km
8월 5일	01:00	물금역앞 둔치광장 야식 먹고...	
	02:00	휴식 후 출발	10km
	05:00	수정역 둔치 체육공원 해단식	
	05:30	수정역에서 해산	



◆ 참교육학부모회 2012년 전국 여름연수 休!!

- **일 시** : 2012년 8월 18일(토) 오후 1시30분 ~ 19일(일) 오후 12시
- **장 소** : 전남교육청 지리산학생수련장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244 / 061-782-0194)
- **참가비** : 어른 20,000원 / 어린이 10,000원(2007년생부터 무료)
(1박2식 제공)
- **지부지회 분담금** : (8월 결산에서 일괄 정산됩니다.)
회원 50명 이하 30,000원/ 회원 50명부터 50,000원/100명부터 70,000원
- **개인준비물** : 물컵, 세면도구, 여벌옷, 방석 / 어린이(모자, 썬크림, 튜브..)
(공공기관이라 수건, 비누 등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1. 어린이프로그램 참가자는 1시40분까지 수련장에 꼭 도착하셔야 합니다.
(순천만까지 이동 1시간 소요.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각 불가!!)
2. 강당에 책걸상이 없어요(-.-;;). 엉덩이 보호를 위해 방석을 잊지 마세요.^^
3. 지리산 트레킹을 위해 최소한 운동화는 신어주는 센스~!!

● 프로그램:

첫째날 (8월 18일, 토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어린이
13:30~14:00	접수	
14:00~16:00	전통놀이 한마당	고고씽~
16:00~18:00	학부모포럼 '새로운 대학체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순천만생태공원
18:20~19:00	저녁 식사	식사
19:00~22:00	학교폭력 역할극과 집단토론회	놀아보자!
22:00~23:00	어울림마당	꿈나라~~
23:00~	취침	

둘째날 (8월 19일, 일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용	어린이
07:00~08:00	기상	깨어라~~
08:00~09:00	아침식사	식사
09:00~11:30	지리산 트레킹 '룰루랄라~~'(화엄사<->연기암)	화엄사보고 물놀이~
11:30~12:00	1박2일을 돌아보며	니들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봤니?^^
12:00~	집으로 (점심은 자율식사/본인부담)	

◆ 녹색식생활 교육 체험학교

● 수수경단만들기에 함께해 주세요

- 8월 8일 청룡초등학교
- 8월 13일 안진초등학교
- 8월 29일 모라초등학교



◆ 함께할 새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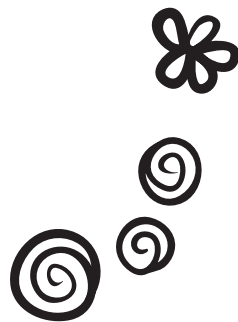
- 4월 정미경, 김지원, 제진희, 정동주
- 5월 최영순, 장은숙, 김영미, 양미진, 김은정, 김수진, 김경숙, 윤송태, 강석희, 이금숙
- 6월 노혜경, 정이덕
- 7월 서정자





7월 이리렇게 보냈어요

7월 2일	라디오시민세상-학습선택권조례 녹음(김정숙, 이일권)
7월 4일	체험학교 수수경단만들기 시연(김옥랑씩덱)
7월 5일	노영민 회원 시집출판기념회 (이규남, 서정자, 김정숙)
7월 6일	임해경교육감 아웃 대책위 일인시위(이규남)
7월 9일	친환경 학교급식조리사 연수 강의-김정숙(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7월 11일	녹색식생활교육 체험학교 금샘초등 수수경단 만들기 (김옥랑, 김정숙, 김혜례)
	임해경 교육감 아웃 대책위-곽선희
7월 12일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
	임해경 교육감 아웃 일인시위-시의회 앞 (김정숙)
	지방분권국가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기자회견 (정찬호)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이사회-참학
7월 13일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 (김정숙)
7월 16일	반핵대책위회의-동래생협(김정숙) -원전홍보 뮤지컬 상영 문제
7월 17일	교육희망네트워크 워커샵-전교조 (김정숙 대학교육정책 부분 발표)
7월 19일	학습선택권 조례 찬성 15,445명 서명지 시의회 접수
7월 21일-22일	부산지부 연수 - 통도사 환타지아 콘도- 41명 참가
7월 24일	임해경 교육감 아웃 학부모 1000인 선언: 부산시교육청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김정숙, 장현숙, 염상미)- 이일권 학습선택권조례 찬성토론
	학습선택권조례 재의결하라 일인시위-장유성
	학습선택권 조례 시의본회의 부결
	학교폭력 토론회-부산발전연구원(김정숙)
7월 25일	교육혁명 대장정 발대식-부산대학교 (김정숙)
	영화소모임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의 전당)
	학습선택권조례 부결에 따른 성명서 발표
7월 30일	민주공원 청소년농술 본선진출자 간담회-시민운동과 정치



7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류봉심(2개월),채승영(2만),허미경(3개월),김정숙(2만),박옥화(2만),김옥순(2만),이금숙(a,2만),장선희(2만),신영희,곽선희,박성미,이행봉,김기영,조금제,박은숙,송경희,홍동희,박희옥,김윤자,이일권,공외정,류정애,김종철(2만),윤내경(2만),윤신옥,김형선,최경희(a),조명숙(3만),김정원,문재경(5천),윤연섭,조석현,노희정,하주연,맹일영,이미연(3개월),전순실,손진숙,홍정희,이남숙,최경희(b),이희주,정윤숙,최한,이재희(5천),고혜경,신수자,최승희,김현준,심미숙,유은정,김수영,이혜숙,양윤자,김경선,심성보,곽차섭,김경희(a),박무준,정수련,황선애,허운영,지영경(5천),김종찬,황송미,정동희,고창민,황보덕,오봉숙,김동철,유명희,김석준,곽태순,장순옥,이종명,장지숙,임석규,이영주(2만),신석열(2만),김태만,박유미,송명희,곽은순,장유성,신지원,이승중,민문식,김익수,이성하,정재천,김원재,장동제,이규남(2만),임주연,송기수,송철동,이선애,김정애,주우명,권서용,배종만,백미영(5천),문명숙,송승희(3개월),김법기,최은화,서인석,강순금(2만),임창영,김정열(5천),이정형,강정아,손건태,조원국,남광우,서권석,김춘미,이진희(3개월),백점단,안종기,최정홍,황은옥(2만),서정호(a),문혜정,장말선,백성희,서정호(b),연세뜨,박경아,정연재,문영식,우성만,정명주,왕병구(2만),강은조,서경애,노기섭,장현숙,김영미(a),김경준,김상현,김현봉,고내현,노영민,부지환,이재홍,김혜례,강재성,최중수,박덕수,문인숙,이병숙,윤영근,권인근,이미옥,김성희,박귀남,김금련(3개월),김재홍,성인심,배문주,손희정,권영순,임영선,김경희(b),박준건,강아련,김옥랑,김성미,이수진,이혜영,서석태,이인경(5천),조정화,주정현,김영희(b),이주현,편국자,김영숙,이정인,최지선,최점순,여진호,조병준,김동희,이내훈,이은정,노귀전,석은경,남경화,송부희,함정화,장정인,정미경,정동주,제진희,최영순,양미진,장은숙,김은정,강석희,김경숙(b),김영미(b),윤송태,김수진,이금숙(b),염상미,노혜경,김지원,김곤(3개월),정이덕,서정자(5만)

■ 7월 결산 보고

수 입	지 출 내 역	지 출 금 액	이 월 금
이월금 5,302,620	중앙 분담금	574,250	5,130,840
	본부후원의날 후원	200,500	
회비수입 2,415,000	사무실 운영비	282,930	
	연대사업비	120,000	
후원금 0	상근자월급	500,000	
	소식지 발송비	90,000	
이자수입 0	소식지 인쇄비	330,000	
	상반기지부연수	371,100	
기타수입 160,000	사무실 임대료	275,000	
수입 합계 7,874,620	지출 합계	2,743,78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 계좌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기타수입은 지부연수에서 당일 참가비입니다.
- 지부연수로 이번 달 지출이 회비수입보다 좀 많았습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은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야마하피아노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